지상백고좌

서울 도안사 회주 선묵 혜자 대종사

“인욕보살 되세요…적이 없어집니다”

12면에 이어

광명진언은 여의주와 같아서 일체 지혜와 행복과 유형무형의 모든 광명을 불러오는 보배의 다라니진언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광명진언 독송기도도 좋고 관음기도도 좋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시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관세음보살 귀명문’의 구절이 더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향로에 향을 사르니 법계에 향기가 진동하고/ 부처님 회상에 퍼지어 가는 곳마다 상서로운 구름/ 저희 뜻 간절하오니 부처님 강림하옵소서.

역사의 역사가 된 ‘108산사순례’

혜자 스님이 대중들과 함께 기도를 올리는 이유는 자명했다. 기도하고 수행해야 삶을 바꿀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광명기도와 관음기도 전에는 한국불교 순례문화의 역사를 바꾼 108산사 순례와 53기도도량 순례가 있었다.

‘108산사를 찾아 108불공을 올리며 108선행을 통해 108공덕 짓고 108배하며 108번뇌를 소멸하고 108염주를 만들어가는 인연공덕을 쌓아가는 선묵 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는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지구촌은 하나라는 모토와 부처님의 평화사상을 전한다는 취지로 2006년 9월 첫발을 내딛었다. 2015년 10월 9년간의 여정을 마친 뒤에도 2차 108산사순례와 53기도도량순례도 계속됐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서울 도선사와 양산 통도사를 시작으로 매달 5000여 명이 참여해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며 기도와 수행, 나눔과 봉사를 실천했다. 9년 동안 연인원 약 54만명이 동참해 지구를 204바퀴나 돌았고 여기에는 1만 2000여 대의 버스가 동원됐다. 또 순례하는 사찰마다 회원들이 십시일반 쌀을 보시해 총 3000여 가마의 쌀을 공양했고, 군 장병들에게 415만개의 초코파이를 보시했으며, 순례지에서 농어촌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회원들이 30억원 어치의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등 각종 진기록을 세웠다.

혜자 스님이 진행한 순례는 ‘혁명’이었고 ‘역사의 역사’가 되었다.

“108산사순례가 ‘바른 마음, 자비로운 실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목표에 따라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순례였다면 53기도도량순례는 발원과 기도, 수행이라는 신행·수행문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선지식은 앉은 자리에서는 만나지지 않습니다. 오직 보리심을 발하여 찾아 나설 때만이 비로소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결코 주저앉거나 물러나지 않겠다는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발심으로 마침내 성불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정진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네팔 룸비니에 조성한 한국의 종을 선혜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타종하고 있는 선묵 혜자 스님.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108산사를 순례하기는 한국불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시며 저를 격려해주셨습니다. 그 오랜시간 동안 사고 한번 없이 순례를 진행한 것은 많은 대중들이 마음을 모아준 결과이고 또 불보살님들께서 가피를 내려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힘을 받아 순례기도를 진행했고 뒤이어 광명진언기도와 관음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음기도가 끝날 때가 108산사순례 20주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시는 모든 대중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룬 성과들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래도 굳이 하나 의미 있는 일을 꼽는다면 지난해 네팔 룸비니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한국의 종’을 세계에 울린 것이다.

룸비니에 조성한 한국의 종은 무게가 1.5t이다. 충북 진천에서 제작해 부산항으로 이운한 뒤 다시 배에 싣고 싱가포르를 거쳐 인도 콜카타로 옮겼다. 콜카타에서 트럭에 싣고 육로를 통해 네팔 룸비니로 오는 데만 꼬박 5일, 총 53일이 걸렸다. 종 이운과정보다 그전 과정은 더 드라마틱했다.

수행은 기본… 수행돼야 기도도 가능
마음공부 함께 인욕하는 마음 가져야
“인욕하면 더 큰 행복 느낄 수 있어”

“2008년 네팔은 정부군과 반군의 전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해외의 관광객이나 히말라야에 가고 싶은 등산객들도 네팔 방문을 꺼릴 정도였어요. 네팔 정부로서도 여러가지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108산사순례기도회원 300명을 이끌고 전세기를 이용해 룸비니 순례를 갔습니다. 네팔 정부로선 우리 순례기도회가 그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우리 순례단이 네팔에 머무는 1주일간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는 평화 휴전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우리 순례단의 방문이 협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네팔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네팔 정부는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 저에게 룸비니 동산에 있는 땅 2000평을 통 크게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2000평 부지 내에 부처님 탄생불을 모셨습니다. 탄생불의 발바닥에는 인도 쿠시나가르에서 받은 진신사리를 모셨습니다. 탄생불을 조성하고 한국의 종을 바로 조성하려 했는데, 코로나가 찾아와 진행하지 못하다가 작년에서야 한국의 종을 건립했습니다.”

혜자 스님은 “룸비니 동산을 찾는 모든 세계인들이 한국의 종을 칠 수 있도록 개방했다”며 “한국의 종이 룸비니에 울릴 때마다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평화사상이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전해지길 바라고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갈등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조만간 도안사에 조성된 평화의 진신보탑과 똑같은 탑을 룸비니에도 조성해 성역화 불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음공부와 忍辱이 필요한 때

수많은 신화를 써낸 스님은 “그래도 수행자의 본분은 수행”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수행이 바탕이 되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불사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청담 스님과의 이야기를 한 구절 들려줬다. 출가하고 세월이 좀 흐른 어느 날 청담 스님이 혜자 스님을 불렀다.

“나는 고등학교 때 길에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다가 어떤 스님이 ‘마음이 타는 것을 물로 식힐 수는 없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발심해 출가를 했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출가를 했느냐?”

“큰스님! 저는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지금도 그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모르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 깨달음을 구해 보아라.”

청담 스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혜자 스님은 ‘모르는 마음’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정진했다.

“저의 모든 기도와 수행의 여정은 이때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과 함께하며 저도 성장하고 우리 불자들도 좀 더 성숙한 수행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은사스님께서는 ‘마음’에 대해 ‘이 마음, 생명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마음은 곧 우주의 핵심이며, 만물의 생명인 것이다. 영원한 실재인 이 생명, 이 마음을 떠나서 어느 곳에 인생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인생이며, 문자 그대로 신비이며 무사의(無邪疑)한 이 생명을, 이 마음을, 이 나를 바로만 깨닫고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모조리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있습니다.”

혜자 스님은 마음공부와 함께 인욕(忍辱)의 중요성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욕을 하게 되면 적이 없습니다. 인욕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인욕을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 은사스님처럼 ‘인욕보살’이 되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 확신하게 됐다. 혜자 스님이 만든 엄청난 성과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며, 절실한 기도와 수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6월 관음기도의 둘째 날에 이어 마지막 날에도 도안사를 찾았다. 성큼 다가온 초여름의 더위가 괴롭혔지만 대중들의 기도는 여법하고 여법했다.

기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때 하늘에는 일심광명 무지개가 떠올랐다. 혜자 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정진하는 대중들에게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유철주** / 작가

불광출판사·월간 불광

2024 서울국제도서전 참가!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6. 26.(수) - 6. 30.(일)

코엑스 C&D1홀 (부스 번호 I 10)




서울국제도서전은 전국도서전시회로 시작했던
1954년부터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출판사, 저자, 독자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책 축제입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저자와의 만남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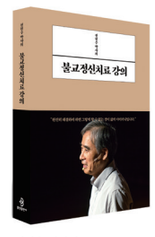
일시
6. 27.(목) 2시
원철 스님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일시
6. 28.(금) 2시
원영 스님





전현수 박사의 불교정신치료 강의

일시
6. 30.(일) 2시
전현수 원장

